

③

<고린도전서>

11.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“무엇”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합니까? (1-3장)

12.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“무엇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? (4-6장)

13.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 말합니다.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“무엇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까? (7-9장)

14. “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① )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② )시라 할 수 없느니라” (10-12장)

15. “이것”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씀합니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(13-14장)

16.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“무엇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? (15-16장)

<고린도후서>

17.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“무엇”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까? (1-3장)

18.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“어떠한 집”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합니까? (4-7장)

<수고하셨습니다. 한주간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.>